

문화

제19회 전국무용제 빛고을, 만인의 춤으로

21~30일 문예회관, 전국 15개 팀 실력 겨뤘
유니버설 발레단 등 축하공연도... 전석 무료

무용은 여타 분야에 비해 관객층이 두텁지 않은 장르다. 작품을 이끌어 가는 뚜렷한 줄거리나 대사가 없이 음악과 몸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터라 난해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마침을 가을, 광주에서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무용 축제인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 19회 전국무용제는 전국 각 시도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5개 팀들의 경연이라는 점에서 무용팬들이 놓치기 아까운 행사다.

21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황해민과 임재용이 발레 '해적'과 '심청'의 2인무를 선보인다. 또 백시호현대무용단과 그루지아 아브라함스극무용단이 '라 세르베네타'와

민속무용을 무대에 올린다.
경연 첫날인 22일에는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주최측 팀이 첫 무대에 오르는 관례대로 광주 대표인 김미숙씨리 한국무용단이 경연에 나선다.

광주는 지금까지 전국무용제에서 김미숙 한국무용단의 '희소', 박근자발레단의 '가을빛 소나리', 임지형 광주현대무용단의 '물 밑 꽃잎' 등이 5차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각 지역 대표들이 경연을 펼치는 날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20여개 무용단이 광주비엔날레 야외무대에서 '시도의 날'이라는 타이틀로 야외공연을 펼친다. 30일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시상식(대통령상 2000만원)과 함께 폐막공연으로 광주시립무용단이 '백조의 호수' 2막을 선보인다.

경연대회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공연 전·후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광주문예회관 야외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뒤편에서는 '아이 러브 발레', 월드그룹 '무트리지', 엘비스 매직쇼, 인디밴드 페스티벌, 비보이 초청공연, '키와'와 함께 하는 무용영화 상영' 등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도 눈길을 끈다. 백시호현대무용단의 '현대무용 테크닉 워크숍'이 열리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상문 공모전도 준비했다. 또 행사 기간동안에는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광주를 포함한 한국무용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코너다. 개막식이 열리는 21일에는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등 원로 무용인 19명의 족적을 떠 행사가 간 동안 전시하는 '춤추는 발'이 눈길을 끈다. 또 박근자·강화랑·송준영·임영자 등 광주 지역 원로 무용가 4명을 포함, 한국무용에서 큰 족적을 남긴 무용가 19명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아름다운 역사, 무용'도 준비돼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14-2637.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2010 대한민국무용대상 '제19회 전국무용제' 경연일정

Table with 7 columns: Date (22일(금) to 29일(금)), Location, Artist/Team, and Performance Title. Includes teams like 김미숙 한국무용단, 유니버설 발레단, 박성호 무용단, 김보라 무용단, 김의식 무용단, Han's More Dance Company, 제주오름민속무용단, 장미영 무용단, 성남 이영순 무용단.

정혜경 집행위원장 인터뷰

"마음 열고 보면 큰 감동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무용의 현주소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드문 경우예요. 무용을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열고 보시면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 정혜경 제 19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장은 "무용 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준비했다"며 "무료로 모든 공

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6년만에 전국 행사를 치르느라 올초 위원회를 꾸려 지역 무용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위원장은 "공연장 운영 등 지역 참가자들이 공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각 시도의 대표 무용단이 광주비엔날

레 야외무대에서 특별 공연도 진행합니다. 지역 참가자들에게는 비엔날레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또 비엔날레 관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할 예정이구요. 문화수도 광주의 진면목을 보여줘야죠."

정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무용이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계기가 돼 앞으로 광주에서 다양한 무용 공연들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 9탄

"디지털 매체 예술

예술가와 관객 경계 허물었다"



전북대 심혜련 교수 15일 '이미지와 매체, 그리고 디지털 매체 예술'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공동주최하는 '현대미술과 인문학' 아홉 번째 강좌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심혜련(전북대 과학학과·사진) 교수가 '이미지와 매체, 그리고 디지털 매체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심 교수는 13일 강좌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사진과 영화의 등장인물은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방식의 대변혁을 가져왔고, 현대에 등장한 디지털 매체 예술은 생산과 수용이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설명했다.

"발터 벤야민의 매체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심교수는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등 다양한 미학관련 서적을 펴낸 매체

미학 전문가다. 한편 '현대미술과 인문학' 다음 강좌는 내달 19일 김선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초청해 '미디어시티 서울에서 본 도시와 비엔날레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신청순 150명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 062-613-5392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선선한 바람~ 가을로의 예술여행

광주시립미술관 작가 7인 '가을을 걷다'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립미술관이 찬란한 계절 가을로의 예술여행을 제안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사진작가와 화가, 조각가 등 7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가을을 걷다'전을 개최한다. 12월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제3, 4전시실.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담은 사진과 회화, 조각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진작가 박하선은 '발해의 땅'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근원을 찾아 그 흔적들과 진실을 담았다.

서양화가 송필용은 '물위의 산수·몽유금강' 등 아름다운 산수풍경으로 현실세계를 넘어 그리움과 기억, 희망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 서양화가 한희원은 '바람을 따라 길을 걷다' 등 서정적이면



박하선 작 '발해의 땅'

서도 시적인 작품으로 가을의 정취와 인간 본연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각가 손연자, 한국화가 오경규, 허임석, 섬유공예가 정에금 씨도 각각 '가을여행' '가을-산길에서 해탈하다' '가을 낙' 등의 작품을 냈다. 문의 062-613-7142.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인숙씨

7년만에 시집 '별이 담긴 술병' 펴내



"강아지풀 우물대는 / 강둑을 걷다 보면 / 그리움의 시간들이 / 하얀 땅조각으로 모여있다 // 햇살은 시간 위에

빛살무리로 내리고 / 포석(布石)처럼 / 드문드문 / 물결에 닿은 돌이 마가 빛난다 ('그리움의 표') 중"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김인숙(46·사진)씨가 최근 시집 '별이 담긴 술병'(현대시 펴냄)을 냈다. '내일

이 있어 더 푸른 날들이' 이후 7년 만에 내는 시집이다.

대자연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순수시의 탐구에 주력해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자연과의 교감으로 얻은 오묘되지 않은 순수함과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59편의 시를 3부로 나눠 엮었다.

김시인은 "이번 시집은 뜨거운 가슴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우며 7년여간 써온 것"이라며 "순교한 자연을 빚어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등 살아있는 감정을 노래하고 싶었다"

고 말했다. 화순 출생인 김 시인은 광주대 문창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오늘의 문학' 신인상, 2000년 공무원 문예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주 문흥동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guk Myungmun University (국립명문대학교) featuring a 56th anniversar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 Real Estate Consulting (GG경매컨설팅(주)). Includes contact info, company address, and detailed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apartments, houses, land) across different districts like Gangnam, Songdeok, and Gwangju.